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가속화

목동 9·13단지 심의 통과 최고 49층 대단지 들어선다

준공 39년 아파트, 나란히 재건축 통과
총 7810가구… 개방형 단지로 탈바꿈

서울 양천구 목동9단지와 13단지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준공 39년 된 두 단지는 최고 49층, 총 781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두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와 주민공동시설, 공원 등을 조성해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개방형 단지로 재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2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정동 312번지 일대 '목동9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신정동 327번지 일대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경관·교육·교통·재해·환경·공원 등 7개 분야를 통합해 심사했다.

목동9단지는 양천구청과 양천근린공원에 인접하고 북쪽에 서울신서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 41개동, 최고 49층, 39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구역면적은 18만 3057.8㎡로 용적률 299.94%, 건폐율 19.54%가 적용된다. 최고 높이는 166.9m다.

목동13단지는 양천구청과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공동주택 26개동,



목동9단지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최고 49층, 385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구역면적은 17만8919.9㎡이며 용적률 299.96%, 건폐율 20.58%가 적용된다. 최고 높이는 156m다.

특히 목동13단지는 앞선 제1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보완 의견과 지난달 열린 통합심의 소위원회 자료 결과를 반영했다. 중·저층 배치 구간의 층수를 완화하고 주동 높이를 다양화해 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고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피하도록 계획했다.

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남권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재개발 무산됐던 홍제동 3곳 묶어 2520가구 재탄생

개미마을·문화마을·홍제4구역 3곳 통합
인왕산 훼손 부지 공원으로… 자연 보존

각각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문화마을·옛 홍제4구역이 하나의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세 지역을 통합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최고 30층, 252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인왕산 자락의 훼손된 부지 약 3만㎡는 공원으로 복원하고 기존 마을길과 자연경관은 최대한 살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홍제동 9-8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13만4565㎡다.

이 일대는 그동안 3개 마을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인왕산 경관 보호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제한, 낮은 사업성 등으로 사업이 잇따라 무산됐다.

서울시는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세 마을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반시설을 연계하기로 했다. 기존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인 주택용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용적률 275.6% 이하를 적용해 최고 30층,



2520가구 안팎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인왕산 자락 약 3만㎡는 공원으로 복원한다. 기존 마을의 주요 생활 동선도 최대한 유지한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세검정로4길을 살리고 홍제천과 인왕중학교, 홍제역으로 이어지는 옛길을 연결한다.

인왕산 경관을 고려해 건물 높이는 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인왕산 인접부는 20층 안팎, 내부순환로변은 30층 안팎으로 계획해 인왕산 산세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든다.

/이현진 기자



metro

‘4세·7세 고시’ 유아 레벨테스트 사라진다 경기도, 추석 연휴 시외버스 80대 늘린다

내달 1일부터 시험·평가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4세·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이 전면 금지된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시험이나 평가를 치를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퍼진 4세·7세 고시는 그동안 아동 인권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에 조기 사교육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올해 5월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의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올해 3월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금지되는 시험의 범위를 필기·구술·실기·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 결과를 활용한 평가, 능력을 서열화

하는 시험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에 이미 등록한 유아를 관찰·면담하는 방식의 진단은 예외로 허용한다. 이 경우도 보호자에게 목적과 방식을 미리 안내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과를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과외교습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유아도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 과외교습자나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지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수정 기자 korystal@

오늘부터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귀경길 도시철도 심야 연장운행

경기도가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시외버스를 증차하고 도시철도운행을 연장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202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시외버스는 40개 노선에 차량 80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일 120회 늘린다. 시내·마을버스도 이용객이 몰릴 경우 시·군 여건에 따라 막차 시간을 최대 1시간 연장하고,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 주변에는 택시 운행도 확대한다. 도시철도는 귀경객이 집중되는 26일부터 27일까지 심

야 연장 운행한다. 의정부경전철과 5호선 하남선, 8호선 별내선은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7호선 부천구간은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도로 정체 시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주변 우회도로와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버스정보 앱과 누리집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도로의 정체 상황과 빠른길, 교통사고·도로통제 등 돌발정보는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모바일웹, 교통안내전화를 통해 안내한다.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교량 배수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대응반과 지역별 상시보수 업체를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한-싱가포르 교육장관 만나 교육정책 논의

초·중등 학교제도, AI 교육 등
양국 정책, 추진 경험 등 논의

한국과 싱가포르가 교사 교류에 이어 AI·세계시민교육까지 정책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교육장관회의에서 두

장관이 나란히 의장직을 맡은 것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의 교육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초·중등 학교제도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정책 ▲전 생애주기 인공지능(AI) 교육 등 양국의 주요 정책과 추진 경험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제1차 한-싱가포르 교육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는 이공계(STEM) 교사 교류도 추진하는 등 교육 분야 협력을 넓혀왔다.

최고진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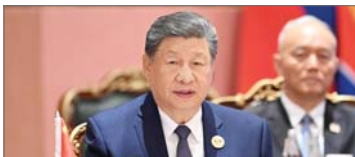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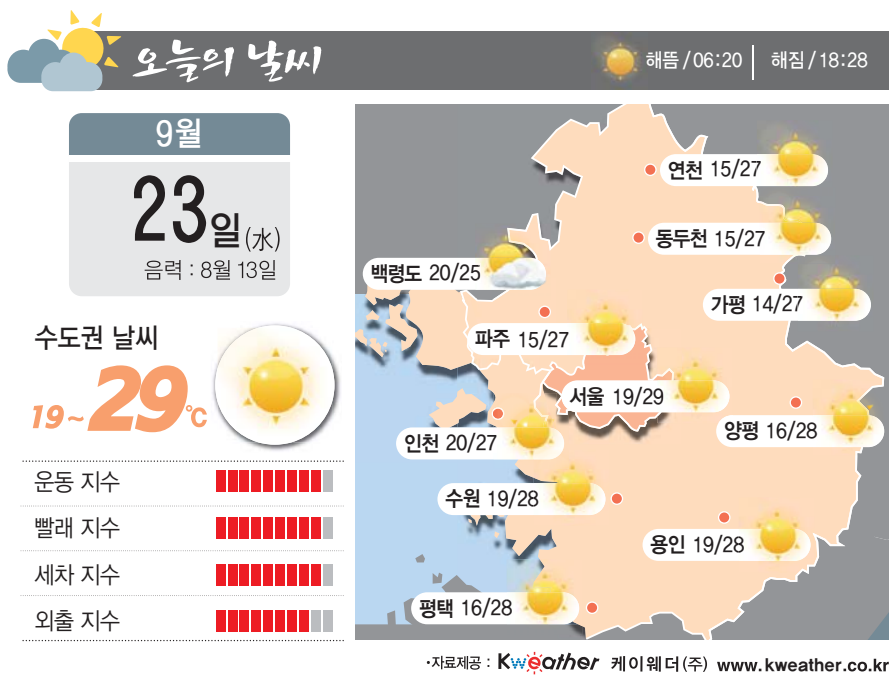


최고진 교육부 장관(왼쪽)과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교육부

육과 인재 양성을 국가 발전의 중요 기반으로 삼고 교육 혁신을 지속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교육정책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美 “중국과 무역휴전 연장 계속 논의할 것…미 중회담서는 발표 없을수도”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서 일본·대만 책임론 꺼낼 가능성

/사진 뉴시스

▲트럼프, 취재 출입금지·보이콧 언론사들 겨냥 “3류 광대들”

▲트럼프, 예멘 대통령과 통화…후티 저지 군사지원 약속은 없어

▲룰라 브라질 대통령, 트럼프 겨냥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어”

▲NATO, 러 확전 시도 경계…발트 지역 대비태세 강화